

佛蘭西抵抗詩小考

梁 白 岩

3 줄지 않는 노래

周知하는 바와 같이 文學의 流派로서 象徴主義는 第一次大戰과 함께 끝나고 運動으로서의 超現實主義는 1920年代에 다 못되어 쇠퇴하여 갔다. 그 후 이류를 잇는 어떠한 詩의 流派도 運動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30년은 아닐 것이다. 戰前 30年代의 불란서 文壇에는 超現實主義와 더불어 成長한 詩人들의 活動이 이미 하였을 뿐 아니라 불란서 抒情詩의 傳統 그 自體가 生命을 잃어가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리하여 戰前의 詩人들은 象徴이 몰드론 땅 위에 차차 꺼져가는 象徴主義의 太陽으로 몰드론 最後의 光明에 鄉愁조와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 鄉愁를 깨치고 詩의 光明은 夢에 지니고 나온 것이 「아라공」이며 現實主義의 남은 것들이 속에서 불타는 雙둥을 본 것이 「엘리아우」(Paul Eluard Jean du Haut 1895)이고 抵抗과 더불어 象徴主義의 黃昏을 벗어난다. 당시 가부리아 들에 솟는 아침의 太陽을 받은 것이 「에마뉴엘」(Pierre Emmanuel—Jean Amyot 1916)이다. 이의 절은 시인들인 것이다. 「폴·엘리아우」는 이렇게 하여 불란서의 詩와 더불어 그 自體의 精神發展이 증진지 않음을 證明하였는가?

그는 思想 超現實主義者 가운데서 30年代까지 노래하였던 詩人이며 가장 平易한 言語로 直接으로 讀者에게 말을 쓴 詩人이며 또한 「아라공」과 함께 「나치스」에 對抗하여 그의 詩的 表現力과 活動力 一切를 바쳐 가장 灼열한 詩人임을 證명한 詩人이다.

그는 1895년 12월 14일에 탄생하였다. 「Tristan Tzara」와 「Breton」에 1년 먼저 「아라공」과 「Philippe Soupault」에는 2년 앞서 태어난 것이다.

서로 前後하여 태어난 이들 詩人과 「Max Ernst」(1891—) 「Pablo Picasso」(1881—) 「Georgio di Chirico」(1888—) 또한 「Man Ray」(1891—) 「Salvador Dali」(1904—) 등과 같은 美術家一團을 합친다면 그들로 超現實主義運動의 母體가 된다. 말 할 것도 없이 「부르동」은 運動의 理論家이고 精神의 中心이였으나 「엘리아우」는 運動의 으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感性的인 詩句를 만들어 낸 詩人이었다.

이 超現實主義의 原理는 詩人에 있어서도 美術家에 있어서도 다 같이 現實을 藝術家의 主觀으로 還元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꿈은 第二의 人生이다」라고 쓴 「Gérard de Nerval」 또한 「Arthur Rimbaud」와 「Comte de Lautréamont」는 超現實主義의 先驅者들과 같이 單純한 形式에서 日常의 單語를 살려 강력한 效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러한 效果는 그가 오랜 동안 追求하여 왔던 것이었다. 그는 抵抗이 要求하는 民衆의 詩의 形式을 스스로 만든 길위에 그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 詩人은 「엘리아우」이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이 무엇이 詩人의 主觀에 繼起되었는가? 무엇이 畫家의 解放할 vision이며 무엇이 그의 自然에 물려 보낸 想像이냐 하는 것일 것이다. 「부르동」은 「Manifeste」속에서 「우르이다」를 생각해 냈다. 그러나 詩人의 詩人 「엘리아우」는 自體의 詩를 「어떤데」 「Renoir」를 어떤 데 「Radenbach」를 생각하게 하는 image로 주며 나갔다. 유리창 太陽 바람에 흔들리는 미모사... 정답고 깊은 日常語에 詩人은 微妙한 빛을 부어 주는 것이다.

그녀는 서있다 내 눈앞에
그녀는 서있다 내 눈앞에

미리칼은 내것과 섞이고

그녀는 내손모양을 하고

내눈의 빛깔을 가지고
나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하늘을 나르는 작은 들치처럼

Elle est debout sur mes Paupières
Et ses cheveux sont dans les miens,
Elle a la forme de mes mains,
Elle a la couleur de mes yeux,
Elle s'engloutit dans mon ombre
Comme une pierre sur le ciel.

(Eluard, L'Amoureuse, Capitale de la douleur)

1936년 처음으로 초창기 스페인어로 가서 「Picasso」에 관한 講演을 한 「엘리아우」는 이 旅行에서 아주 重大한 影響을 받은 모양이다. 內亂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이나 그 당시 「우랄코」는 政府를 攻擊하여 「파시스트」와 國民戰線과의 對立은 전 유럽을 불태웠었다. 「모든 詩人에게는 다른사람의 人生 혹은 共通의 人生에 깊이 沒頭하는 것을 支持하고 가담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그러한 時代가 왔다」라고 그는 썼다.

그리고 나는 의롭지 않다
나의 무수한 이마주가 빛을 증가하는 것이다.

Et je ne suis pas seul mille images de moi multiplient ma lumière
(Eluard, Sans Age Cours Naturel)

「그것은 새, 그것은 아이들, 그것은 바위, 그것은 平野」인 것이다. 스페인 內亂에서 파시스트의 彈丸에 넘어지는 것이 스페인 國民이 아니라 불란서 國民인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가 왔다 「파리의 벽에 布告와 恐嚇과 人質의 리스트가 붙어 어느 사람에게는 恐怖를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수치를 준」 바로 그때가 왔다 「엘리아우」는 본명 「詩와 眞實」(Poésie et Verité 1942)을 써서 自由를 찬양하였다. 그러한 次에는 그 自體의 詩를 行動하였을 때 그 自由의 讚歌는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 넘어 광적으로 임하여 불란서의 精神의 再起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自由」라고 제목 붙인 일련은 「詩와 眞實」속에서도 有名한 것이었지만 正統 畫廊과 같이 單純한 形式에서 日常의 單語를 살려 강력한 效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러한 效果는 그가 오랜 동안 追求하여 왔던 것이었다. 그는 抵抗이 要求하는 民衆의 詩의 形式을 스스로 만든 길위에 그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 詩人은 「엘리아우」이다.

학생의 공적위에
학교의 책상과 나무에
또한 모래위에 눈 위에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황금빛 이마주 위에
싸우는 사람의 무기에
싸움의 화환 위에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장들과 사막 위에
동우리위에 완두콩날 위에
어니시들의 산술집에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발위에 지평선 위에
새들의 날개위에
또한 그림자진 風車집위에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파피린 내 피난집위에
무너진 내 등대위에

런대의 벽 위에도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희망이 없는 放心위에
발가 빛은 고독위에
죽임의 행진에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의살아는 진강에
살아져 버린 고립위에.
추억을 잃은 회망위에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다란 하나 言語의 힘으로
나는 내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너를 알기 위하여
나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배어났다
자유여!

Sur mes cahiers d'écolier
Sur mon pupitre et les arbres
Sur le sable sur la neige
J'écris ton nom

Sur les images dorées
Sur les armes des guerriers
Sur la couronne des rois
J'écris ton nom

Sur la jungle et le désert
Sur les nids sur les genêts
Sur l'écho de mon enfance
J'écris ton nom

Sur les champs sur l'horizon
Sur les ailes des oiseaux
Et sur le moulin des ombres
J'écris ton nom

Sur mes refuges détruits
Sur mes phares écroulés
Sur les murs de mon ennu
J'écris ton nom

Sur la santé revenue
Sur le risque disparu
Sur l'espoir sans souvenirs
J'écris ton nom

Et Par le pouvoir d'un mot
Je recommence ma vie
Je suis né pour te connaître
Pour te nommer

Liberté.
(Eluard, Liberté, Poésie et Vérité)

그는 이렇게 自由를 노래하였다. 1942년의 불란서에서는 自由라는 말이 아 말로 가장 가치있는 것이었다. 죽일 刑명은 「詩와 眞實」의 作者를 告發하였다. 「엘리아우」는 그후 詩의 自由를 피하기 위하여 이르러져 다니며 「詩人의 名譽」(L'Honneur des poètes), 「Europe」, 「Lettres Françaises」, 「L'Éternelle Revue」, 「Bibliothèque Française」 등의 刊物 또는 刊物에 많은 投稿을 하였다. 그는 또한 그러한 雜誌 新聞에 Jean du Haut, 外의 匿名을 使用하여 解放直前까지 많은 詩를 썼다. 그러한 詩의 어떤 것은 계슈타프의 습격을 피하여 남산山中에 숨어 있었다. 그가 2개월간 몸을 숨기고 있었을 精神病院에서 쓰여졌다. 바타 「눈에 밀린 高原 어리광같은 바타」 그 눈위를 높은 타치고 바스르침을 겨우 면한 높은 산 창위에 떠돌아다니는 바타가 밤늦게까지 지키고 있었다...」라고 「엘리아우」를 지기서 만난 傳記者는 후에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 광란한 風景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詩人의 詩는 계슈타프가 있는 곳 고문과 학살이 행해지는 곳 나치스 領下의 불란서에 있었다. 그러한 背景 속에서 태어난 「엘리아우」의 詩도 세월과 함께 더한층 격렬하여 지지 않을 수 없었다. 1942년 「自由」를 노래한 詩人은 43년에 가서

Au nom du front parfait profond
Au nom des yeux que je regarde
Et de la bouche que j'embrasse
Pour aujourd'hui et pour toujours
(Eluard, Les sept poèmes d'amour en guerre)
「분노를 떨치고 무기를 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苦痛의 武器」(Les Armes de la Douleur)라고 이름 붙인 일련은 더욱 격렬하다.
「父親에게」 「그리고 말하는 것은 母親이다」 「그 아들 그 아이가...」의 三部로 구성된 이 詩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의 말로 이어져 最後에 가서 그 아들 自身의 「屠殺者들」과의 싸움을 노래 하였다. 沒頭하는 思想을 품고 있는 말 하나 하나는 지금까지도 밀리는 外國의 讀者까지 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란서의 青春을 鼓舞시켰는가 하

는 것은 상상할 하려도 족할 것이다. 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은 생각지 않는다.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안잔다. 그러나 누구누가 똑 같은 꿈 풀려라는 希望의 夢을 본다
.....
나는 말한다 내 보는 것을
내 알고 있는 것을
진실인 것을
Celui-ci pense à la mort
Celui-là n'y pense pas
L'un dort l'autre ne dort pas
Mais tous font le même rêve
Se libérer
.....
Je dis ce que je vois
Ce que je sais
Ce que est vrai
(Eluard, Les armes de la Douleur Au Rendez-vous Allemand) (E4)

翻譯

편 지 (下)

Liam O'Flaherty 원작
김 영 훈 역

「아빠 그렇게 되면 나두 당나귀 할 나 살수 있지」 둘째 아들이 말을 하였다. 그리고는 좋아라구 기뻐서 날뛰었다.
「에들라 조용하지를 못하겠나?」 어머니가 서글픈 소리로 조용히 하였다. 「내말 편지는 없나요 어디 좀 시 원히 읽어 보시구려」
「헛대 아무나 받아 읽어 봐라 난 손이 떨려 못 읽겠으니...」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뿜어져 감동자 앞에 보이는 것은 보인 것 뿐이었다.
「제가 읽을래요」라고 둘째 딸이 말을 하였다.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받은 그녀는 이리 저리 훑어 보더니 갑자기 울음이 북바쳐 터졌다.
「왜 그래?」 큰 아들이 재증을 했다.
「이리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주옥 울어 보더니 얼굴표정이 금시에 변했다.
「에야 어서 읽어 봐라」 아버지가 무뎠었다.

「양친께」 큰 아들이 대답 읽기 시작했다. 「아 엄마 너무나 의로워요」 편지는 온통 「메리」가 쓰여서 딸이든 눈물 자주 주성이다. 「아빠 왜 재가... 왜 재가... 성립하기 힘들어요 왜 재가 이러한 평정한 곳에 왔는지 엄마 나 위해 해일 기도해 주어야 할까? 아마 동생은 잘 있겠지? 엄마 용서하세요 딸 「메리」입니다」 편지를 다들 듣고 나자 딸과 같은 짐목이 이들을 뒤 밀었다. 아버지가 딸 편지 울기 시작하였다. 「재가」 딸 손에 전해 친친히 일어 서 버린 열었다.

「돈 이야기는 일련 반주도 없는 걸」 그는 이상아듯한 소리로 부들 거렸다. 「20마운드라던 일주일에 벌수 있잖은 아니야?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뜻이 말은 이었다.
어머니는 살짝 아들에게서 편지를 떼어 가지고 계절스럽게 자기 품 안으로 감추어 버렸다.

아버지는 말 담을 끼고 친친히 걸어가며 목에인 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게 내 육신이 돈 이야기들 편지속에 왜 안 썼느냐고 물어보지 못하게 했구나 20마운드! 정말 큰돈이야 그는 술이나 몹시 취한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고서 비틀비틀 걸어나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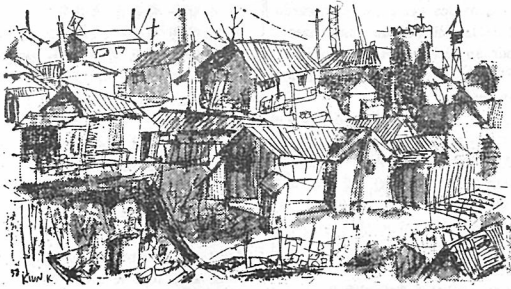
많은 가족들은 말없이 명상에 잠겨 있다. 그들엔 중달세의 노래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돌연 한 애가 뒤쪽으로 쳐다 보며 놀라 웅얼었다. 「아빠가 할 하시나?」 모두가 뒤동그레 쳐다 보았다. 아버지는 발을 나가 돌이 많은 밭으로

들어 갔다. 그는 팔짱을 끼고 머리를 가슴 위로 꼭 면이 뜨린채 바위 위에 올라 서더니 요지부동이었다. 비록 그가 재 가족을 등지고 앉아 있긴 하지만 그가 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말이 죽던 날도 저렇게 가족들 날려져 서 있었던 일이 있었다.
큰 아들이 뒤라곤 중얼대며 벌떡 일어났다.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 못 읽겠으니...」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뿜어져 감동자 앞에 보이는 것은 보인 것 뿐이었다.
「제가 읽을래요」라고 둘째 딸이 말을 하였다.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받은 그녀는 이리 저리 훑어 보더니 갑자기 울음이 북바쳐 터졌다.
「왜 그래?」 큰 아들이 재증을 했다.
「이리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주옥 울어 보더니 얼굴표정이 금시에 변했다.
「에야 어서 읽어 봐라」 아버지가 무뎠었다.

「양친께」 큰 아들이 대답 읽기 시작했다. 「아 엄마 너무나 의로워요」 편지는 온통 「메리」가 쓰여서 딸이든 눈물 자주 주성이다. 「아빠 왜 재가... 왜 재가... 성립하기 힘들어요 왜 재가 이러한 평정한 곳에 왔는지 엄마 나 위해 해일 기도해 주어야 할까? 아마 동생은 잘 있겠지? 엄마 용서하세요 딸 「메리」입니다」 편지를 다들 듣고 나자 딸과 같은 짐목이 이들을 뒤 밀었다. 아버지가 딸 편지 울기 시작하였다. 「재가」 딸 손에 전해 친친히 일어 서 버린 열었다.

「돈 이야기는 일련 반주도 없는 걸」 그는 이상아듯한 소리로 부들 거렸다. 「20마운드라던 일주일에 벌수 있잖은 아니야?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뜻이 말은 이었다.
어머니는 살짝 아들에게서 편지를 떼어 가지고 계절스럽게 자기 품 안으로 감추어 버렸다.

아버지는 말 담을 끼고 친친히 걸어가며 목에인 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게 내 육신이 돈 이야기들 편지속에 왜 안 썼느냐고 물어보지 못하게 했구나 20마운드! 정말 큰돈이야 그는 술이나 몹시 취한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고서 비틀비틀 걸어나 갔다.
많은 가족들은 말없이 명상에 잠겨 있다. 그들엔 중달세의 노래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돌연 한 애가 뒤쪽으로 쳐다 보며 놀라 웅얼었다. 「아빠가 할 하시나?」 모두가 뒤동그레 쳐다 보았다. 아버지는 발을 나가 돌이 많은 밭으로



≪공트≫



千岩塘

코트를 벗어 쓰라 위에 놓았다 너 무 다가 앉아서인지 숨이 확확 새어 나도록 더워졌다 「어유 더워!」 미스 김이 걸어오더니 등 뒤 창문을 활짝 열어 재웠다 칩-바람과 함께 물러 들어 오는 저녁 거리의 소음이 「씨늘했다」던듯 천차 울음이 한결 구슬뿐다

「잘 끝났어?」 「네 찍 불행했던 여인인 모양이 애요」 하얀 카운을 걸친 조그마한 몸매에 밧그스런 땀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발 앞에 날려 떨어진 나뭇잎을 쫓는 동안 미스 김은 다시 수습실 안으로 바빠 들어 갔다

수술이 끝났으니 곧 회생상태(回生狀態)가 되어갈 것이다 나는 굳이 거절하는 미스 김을 조르고 졸라서 반 의식상태에 빠진 여인의 부르짖음을 몰려 들어 불려도 30분정부터 기다리고 있는 참이다 지금쓰고 있는 각본의 한 장면을 더 생생하게 묘사해 보기 위함이다 「죽 죽 죽」 굵은 노크소리가 뚝뚝 울려왔다

담배불을 끄고 일어서는 데 간호부가 산실에서 나왔다 나는 뒤장문만 닫고 다시 쓰파에 「덱석」 앉아버렸다 「선생님이 들어 오시됩니다」 지나치면서 건너 준다 나는 코트와 난로에 땀방울이 맺힌 책봉투를 주어들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

어서는 「드르록」 현판문이 열리는 소리가 북도 저편에서 들려온다 조용하라는 뜻인지 손을 살레 살레 흔드는 미스 김의 동작을 받으면서 구석 의자를 찾아 조심스럽게 앉았다

흔들린 산실의 온도는 좀 이상하다 커-넬으로 가리워져서 여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가슴이 갑갑하다 오늘따라 유달리 초조해짐은 방안이 너무 밝거나 초조하다는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 미스 김의 연한 미소를 받고서야 허리를 펴고 다리를 쭉 뻗어 보는데 여인의 가늘픈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순간 가벼운 진장이 몸을 감싼다 간호부가 들어 와서 미스 김과 무엇인가 속삭이더니 함께 커-넬 뒤로 들어가 버렸다

「참아요 참아요」 갑작스런 높은 부르짖음이 생하니 천정을 울렸다 주먹 신경이 커-넬을 뚫는다 그때 한 청년이 다급히 들어왔다 덥수룩한 머리와 남루한 잠바와 창백한 얼굴이 썩 인상적이다 날카로운 눈이 나를 쏘아본다

어렵시가 느릿 느릿하게 방안을 흔든다 「내가 뭘을 잘 잘못했어요 엉영 응음」

우는 모양이다 청년의 총털린 눈이 초조하게 커-넬을 더듬다가 훑딱 나에게 박힌다 환멸과 의아분노 같은 것이 뒤섞인 야릇한 시선이다

이름을 여러 月刊新聞 其他 雜誌等에 隨筆에 關한 主張은 이 많이 記載된 是 實 事 實 也 高 等 學 生 誌 인 月刊雜誌에서 是 다른 創作 詩와 함께 隨筆의 原稿을 募集 하고 其의 選評이 收錄되고 各 大學新聞等에서 是 秋季에 各 大學別 隨筆 1冊 一 等을 發表하는 일은 참으로 반가운 現象이지나와 여기에 더하여 隨筆에 關한 再考를 一 言하거저 하는 것이다 가끔 우리는 隨筆도 文學으로서 隨筆文學이란 獨立된 形態로 發達되어야 한다고 力說한 글을 보아 온다 그리고 다른 小說家란 名稱과 같이 隨筆家란 이름이 불리워 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隨筆家라고 하면 그리 文學者로서 力量있는 文人으로 取扱이 되지 않는 것은 勿論이요 무슨 雜文이나 發表하는 것으로 誤認하고 있지 않나 生覺된다 實上 우리는 之가 隨筆이라하면 生覺 나는데 못 가는데 힘 주고 부드러운 文體로 엮어나가고 또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글로 알아 왔다 그것은 큰 잘못이다 勿論 文章으로서 부드러운 感覺이 있고 누구나 다 대하기 쉽다고 느끼는 것은 其의 素材가 恒常 너무나 가깝게 우리 周邊에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普通은 身邊雜記가 많이 눈에 띄우는 것도 그까닭이 이라 김 晉燮氏의 「生活人의 哲學」이 그렇고 李 敦河氏의 「나무」가 그렇고 梁 柱東氏의 「노년의 향사」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文學은 하나의 享樂이나 奢侈나 娛樂가 아니듯이 隨筆의 世界도 獨自의 人體與와 力說하고 主張하는 思想이 있어 야 한다 思想이 없는 文學을 우리는 生覺할 수 없으며 人生의 斷面으로서의 強調(勿論 局部의 이라고는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形式의 問題로서 散文類에서 創作과 區別된다고는 하나 形式 外에 文學으로서 內包하고 있는 一切는 하나도 다 쓸 것 이 없어야 한다 너무도 수월하게 隨筆을 다루고 發表하여 한번 生覺하는 다시 더 生覺하지 않는 허술한 生覺은 甚히 害심한 일이다 「글을 쓸 것이 없다 붓을 들고 있는 내 冊床 위에 서 파리가 交尾를 한다……」 이렇게 始作되는 隨筆 (?)은 나는 병어리 잡고매치인 雜文이라고 生覺하여 온다 文學이 하나의 內 求 策의 道具나 또는 享樂이라고 느끼지 않는 限 文學的인 素材와 健全한 思想이 없는 글은 한바루 發表할 수 없을 것이다 分身으로서의 生命의 躍動은 어느 類의 文學이건 마찬가지이다 「茶房에서도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보다 오리라 短編의 이라는 메세지 는 기는 글이라고 하여도 詩의 道 포용도 사랑한다는 말도 해준 적이 없어요……결(毒)머 나면서 까지도……」

文壇에의提言

우리란 絶實한 노래를 어찌 수 없이 낳아 놓은 詩人 自身의 分身 그것같이 隨筆에 生命力을 가지고 또한 強調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必然 隨筆家의 存在가 뚜렷해 지는 것이며 나아가 隨筆의 專門인 아카데미칸 分野는 또한 이룩되는 것이다 이런點에서 隨筆의 世界는 아직도 開拓의 餘地가 있는 것이며 한편 우리들의 雜文의 認識을 先 바르하여야 되겠다 隨筆에 있어서의 慎重性과 人生에 의 含蓄性은 이제 絶對히 要請된다 是로는 感想文과 隨筆을 混濁하는 일이나 紀行文도 어느때는 隨筆로 取扱하는 일 이 있는 데 이것은 形式의 領域을 弄 理解하지 못한 所致이다 感想文도 하나의 文學으로 存立하고 있다고 보아 特殊한 形式의 驅使가 있을 우리는 一 人 隨筆의 形態를 여기서 새삼스럽게 再論할 必要는 없으나 적어도 隨筆은 感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飛躍이 있고 眞理와 人生 主體의 深奧함을 말한단 오늘날 우리 文壇에 局部의 어느 類의 過渡는 尙 有는 傾向을 보며 종종 驚歎을 禁지 못 하 지 만 어느 것 하나 우리들의 緊張과 充分한 知識의 表現이 아니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아무렇게나 써 나아가는 글이라기 보다 하나의 隨筆은 조그만 窓門을 통하여 內 外界와 世界를 내다 볼 수 있을 만큼 內在 的 潛文學熱과 意志가 있어야 할 일이다 現在 우리는 己未年 當時의 文學運動以來 커다란 文學의 過渡期를 맞이하고 있음과 아울러 世界의 거센 思潮에 휩쓸려 其의 輸入에 餘念이 없었고 하여 分分도 내게 내거진 課業에 소홀할 수 없는 處地이다 더 구나 文學徒의 狂熱인 文學熱과 新進의 文壇 大進出이 눈에 顯著한 이때 아직도 隨筆에 關한 認識이 그릇 알려져 있음은 甚히 危險한 일이며 깊이 반성하여야 할 일이다 하루 해를 거듭할 수록 健全한 思想이 積진한 이때 內면하는 오묘야말로 運命의 時期를 기다리기 보다 날카로운 메세 지 加하여 하루 速히 우리들의 腐敗를 治療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隨筆에 의 抗辯을 거듭 말했거니와 지금까지 의 雜文의 形式을 벗어 健全하게 發展하여 生活 周邊이건 또는 內 眼에 展開되는 身邊雜記인 間에 人生의 眞實이 될 수 있는 손색없는 生活自體에서 우리들의 眞理를 表現하는 隨筆文學이 이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隨筆家들이 다른 小說家나 詩人等과 더불어 어깨를 겨누어 邁步할 날이 와야 한다(本 報 文化委員)

隨筆에의 抗辯

이름을 여러 月刊新聞 其他 雜誌等에 隨筆에 關한 主張은 이 많이 記載된 是 實 事 實 也 高 等 學 生 誌 인 月刊雜誌에서 是 다른 創作 詩와 함께 隨筆의 原稿을 募集 하고 其의 選評이 收錄되고 各 大學新聞等에서 是 秋季에 各 大學別 隨筆 1冊 一 等을 發表하는 일은 참으로 반가운 現象이지나와 여기에 더하여 隨筆에 關한 再考를 一 言하거저 하는 것이다 가끔 우리는 隨筆도 文學으로서 隨筆文學이란 獨立된 形態로 發達되어야 한다고 力說한 글을 보아 온다 그리고 다른 小說家란 名稱과 같이 隨筆家란 이름이 불리워 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隨筆家라고 하면 그리 文學者로서 力量있는 文人으로 取扱이 되지 않는 것은 勿論이요 무슨 雜文이나 發表하는 것으로 誤認하고 있지 않나 生覺된다 實上 우리는 之가 隨筆이라하면 生覺 나는데 못 가는데 힘 주고 부드러운 文體로 엮어나가고 또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글로 알아 왔다 그것은 큰 잘못이다 勿論 文章으로서 부드러운 感覺이 있고 누구나 다 대하기 쉽다고 느끼는 것은 其의 素材가 恒常 너무나 가깝게 우리 周邊에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普通은 身邊雜記가 많이 눈에 띄우는 것도 其의 體與와 力說하고 主張하는 思想이 있어 야 한다 思想이 없는 文學을 우리는 生覺할 수 없으며 人生의 斷面으로서의 強調(勿論 局部의 이라고는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形式의 問題로서 散文類에서 創作과 區別된다고는 하나 形式 外에 文學으로서 內包하고 있는 一切는 하나도 다 쓸 것 이 없어야 한다 너무도 수월하게 隨筆을 다루고 發表하여 한번 生覺하는 다시 더 生覺하지 않는 허술한 生覺은 甚히 害심한 일이다 「글을 쓸 것이 없다 붓을 들고 있는 내 冊床 위에 서 파리가 交尾를 한다……」 이렇게 始作되는 隨筆 (?)은 나는 병어리 잡고매치인 雜文이라고 生覺하여 온다 文學이 하나의 內 求 策의 道具나 또는 享樂이라고 느끼지 않는 限 文學的인 素材와 健全한 思想이 없는 글은 한바루 發表할 수 없을 것이다 分身으로서의 生命의 躍動은 어느 類의 文學이건 마찬가지이다 「茶房에서도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보다 오리라 短編의 이라는 메세지 는 기는 글이라고 하여도 詩의 道 포용도 사랑한다는 말도 해준 적이 없어요……결(毒)머 나면서 까지도……」

호르는 것을…… 그리고 힘없이 물러 갔다……」 때문에 기미어 서서 실린 울었어……호오옥」

古陵周邊 鄭舜泳. 詩. hani 바람 넘나들어 연두비 面紗드러운 D公主 面. 드림은 보라색 활련이 머물어 하늘엔, 水仙花를 담은 魂羊이 두리를 지었습니다. 금잔디, 가을을 벗어 回想은 들에, 마음에도 波紋을 그리고. 老松이 파아란 靑鬱을 이고 落葉이 未練을 纏는는 午後. 高요한 靜寂이 山鹿이랑 太古를 手交하는 동안 「달이 등글었지요? 그날밤말에요. 당신은 「안나 카레니나」보다는 「롯데」를 더 사랑한다고 했지요. 그리고...나보요...」안나」같은 여인이 라고...야나요. 춘식선 나에게 키스

이름을 여러 月刊新聞 其他 雜誌等에 隨筆에 關한 主張은 이 많이 記載된 是 實 事 實 也 高 等 學 生 誌 인 月刊雜誌에서 是 다른 創作 詩와 함께 隨筆의 原稿을 募集 하고 其의 選評이 收錄되고 各 大學新聞等에서 是 秋季에 各 大學別 隨筆 1冊 一 等을 發表하는 일은 참으로 반가운 現象이지나와 여기에 더하여 隨筆에 關한 再考를 一 言하거저 하는 것이다 가끔 우리는 隨筆도 文學으로서 隨筆文學이란 獨立된 形態로 發達되어야 한다고 力說한 글을 보아 온다 그리고 다른 小說家란 名稱과 같이 隨筆家란 이름이 불리워 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隨筆家라고 하면 그리 文學者로서 力量있는 文人으로 取扱이 되지 않는 것은 勿論이요 무슨 雜文이나 發表하는 것으로 誤認하고 있지 않나 生覺된다 實上 우리는 之가 隨筆이라하면 生覺 나는데 못 가는데 힘 주고 부드러운 文體로 엮어나가고 또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글로 알아 왔다 그것은 큰 잘못이다 勿論 文章으로서 부드러운 感覺이 있고 누구나 다 대하기 쉽다고 느끼는 것은 其의 素材가 恒常 너무나 가깝게 우리 周邊에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普通은 身邊雜記가 많이 눈에 띄우는 것도 其의 體與와 力說하고 主張하는 思想이 있어 야 한다 思想이 없는 文學을 우리는 生覺할 수 없으며 人生의 斷面으로서의 強調(勿論 局部의 이라고는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形式의 問題로서 散文類에서 創作과 區別된다고는 하나 形式 外에 文學으로서 內包하고 있는 一切는 하나도 다 쓸 것 이 없어야 한다 너무도 수월하게 隨筆을 다루고 發表하여 한번 生覺하는 다시 더 生覺하지 않는 허술한 生覺은 甚히 害심한 일이다 「글을 쓸 것이 없다 붓을 들고 있는 내 冊床 위에 서 파리가 交尾를 한다……」 이렇게 始作되는 隨筆 (?)은 나는 병어리 잡고매치인 雜文이라고 生覺하여 온다 文學이 하나의 內 求 策의 道具나 또는 享樂이라고 느끼지 않는 限 文學的인 素材와 健全한 思想이 없는 글은 한바루 發表할 수 없을 것이다 分身으로서의 生命의 躍動은 어느 類의 文學이건 마찬가지이다 「茶房에서도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보다 오리라 短編의 이라는 메세지 는 기는 글이라고 하여도 詩의 道 포용도 사랑한다는 말도 해준 적이 없어요……결(毒)머 나면서 까지도……」